



이통 3사보다 최대 1만원 낮아

첫 일주일 번호이동 9160건... 전주보다 19% ↑

헬로 모바일 시장 주도...침체 탈출 신호탄

이동통신 3사에 이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세한 알뜰폰 업계가 최근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1위 업체인 헬로모바일은 알뜰폰 업계 최초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직후인 지난 18~24일 1주일 동안의 번호이동 건수가 565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주(11~17일)의 4400건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은 지난 17일 국내 최저 요금으로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에 무제한으로 풀고, 데이터 사용량에 비해 요금에 차등을 둔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12종을 내놓은 바 있다.

헬로모바일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일제히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알뜰폰 고객 이탈 조짐이 나타나자 동일한 조건에서 이동통신 3사보다 최대 1만원가량 낮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맞불을 놓았다. CJ헬로비전은 새롭게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정확한 가입자 수는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대략 1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가 첫 출시 1개월 반만인 지난 23일 기준으로 350만명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업계 1위인 헬로모바일의 전체 가입자 수가 87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알뜰폰의 파이 자체가 작고, 아직 요금제 출시 초기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는 이와 함께 헬로모바일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후 1주일 동안 알뜰폰 시장 전체의 번호이동 건수도 9160건으로 전 주(7695건)에 비해 19%가량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알뜰폰 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가 나온 뒤 다소 침체에 빠졌으나 알뜰폰 업계에서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오면서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CJ헬로비전에 앞서 알뜰폰 업계 2위인 SK텔레콤이 업계 최초로 1만원대 요금의 3세대(3G) 이동통신 망내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것도 알뜰폰 업계의 최근 상승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CJ헬로비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후 자사의 신규 가입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 고객 중 약 절반은 기존에 보유한 단말기에 유심만 갈아 끼워 쓰는 유심 요금제를 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이달까지 전환신청 연장

미래정보과학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이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동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올 4월24일에는 통신비 절감지원에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다.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요금할인 가입자는 총 89만 8000명이다.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린 뒤로는 72만3000명, 일평균 1만2000명이 가입하는 등 이동통신 소비자의 호응을 받아왔다. 20% 전환 신청 대상자는 17만6000명가량으로, 지난달 23일 기준 8만7000명이 아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전환신청 연장기간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환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판매점 뿐만 아니라 전화,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별 20% 전환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으로 하면 된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TV 리모콘 기능 되는 카카오톡 KT의 IPTV인 올레tv가 최근 유료 방송사업자 중 처음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리모콘 기능을 적용한 서비스인 '올레tv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올레tv와 카카오톡을 연동해 카카오톡이 TV리모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카카오톡 대화창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TV 전원을 켜고, 끄며, 채널을 이동하고,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KT 제공>

모니터, TV가 대세



전 세계적으로 PC모니터 시장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TV모니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TV모니터 시장은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분야로, 업계에서는 국내 두 가전업체가 일찌감치 이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다진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글로벌 TV모니터 시장은 내년엔 11%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모니터 시장의 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은 5.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TV모니터란 모니터의 일종인데 TV튜너가 내장돼 있어 평소에는 PC모니터로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TV로 전환해 볼 수 있는 제품을 뜻한다.

일반 TV에 비해 작고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세컨드 TV 용도로는 물론이고 1인 가구에서는 PC와 TV 겸용으로 쓸 수 있어 모니터 업계에서는 틈새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장이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가전업체들도 앞다투어 TV모니터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1분기 TV모니터 시장 점유율 합계는 96%(삼성 55%+LG 41%)에 달한다.

반면 PC모니터는 여전히 모니터 시장의 절대 다수를 /연합뉴스

차지하고 있지만 PC 시장 규모의 축소와 함께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PC모니터 판매량은 전년 1분기보다 12% 줄어든 2946만대로 나타났다. 올 2분기 판매량도 2880만대에 그쳐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제조사별 판매량 순위는 델-삼성전자-HP-LG전자-레노버 순이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PC모니터 시장 규모는 당분간 계속 축소될 것"이라면서 "TV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찌감치 TV모니터 시장에도 뛰어들어 사업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소 월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